

Bayer, 중국 PU 프로젝트 구체화

2007년 가동 목표 13억달러 투자 ... Mitsui Takeda도 중국투자 추진

Bayer Polymers가 중국 Caojing에 몇몇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Bayer Polymers는 Caojing 프로젝트에 총 13억달러를 투자하고 200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. 프로젝트는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, Butadiene, PO(Propylene Oxide), PS(Propylene Styrene) 및 Polyether Polyol 플랜트를 포함한다.

1단계 비용은 18억달러 이상이고 MDI(Methylene Di-para-phenylene Isocyanate) 24만톤, PC(Polycarbonate) 및 Bisphenol A 각각 20만톤, Polyisocyanate 1만500톤 및 TDI(Toluene Di-Isocyanate) 15만톤 플랜트를 포함한다.

Polyisocyanate 플랜트의 완공은 2003년 5월이고 PC 생산단지의 완공은 2005년으로 예정됐다. MDI 및 TDI 플랜트의 완공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.

한편, 중국정부가 일본, 한국 및 미국산 TDI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아시아의 선도적 TDI 생산기업인 Mitsui Takeda Chemicals이 중국 TDI 생산단지의 건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.

Mitsui Takeda는 일본 Omuta 및 Kashima 플랜트의 TDI 생산능력이 17만5000톤이며 2003년 7월 Kashima 플랜트에 6만톤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. Kashima 플랜트는 원래 대중국 수출 플랜트로 지정됐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24>